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과정에서의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의 역할*

이선희**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유학생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효과적인 적응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목표지향성을 상태적인 개인차 변인으로 개념화하고 이러한 개인차가 유학생의 적응과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 대학교에 입학한 62명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상태적인 학습목표지향성은 유학생들의 적응 및 학업수행 그리고 더 나아가 소속 학교에 대한 정서적인 몰입과 한국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목표지향성이 기대부응이론에 근거한 교차문화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절하는 가를 알아본 결과,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이 낮은 경우에는 기대부응이론에 근거한 교차문화훈련이 학업수행에 도움이 되지만,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다른 준거변인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가 유학생의 적응 및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현장 적용에 대해 가지는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외국인 유학생, 상태 학습목표지향성, 교차문화훈련, 기대부응이론, 성실성, 교차문화적응, 학업수행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동아일보, 2011, 11, 21; 매일경제, 2012, 2, 2; 한겨레, 2011, 2, 20). 교육과학기술부(2010)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외국인 학생 수가 약 8만 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에 비해 거의 700%가 증가된 숫자이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해외 유학생 증가 현상은 국가적

으로 다양한 문화 교류의 기회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새로운 환경 및 언어에 적응하는 동시에 일정수준의 학업 성취를 이뤄내야 하는 다중적인 요구에 직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유학생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만일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러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유학생생활에 실패할 경우, 이는 단지 해당 개인의 손실일 뿐 아니라 소속 대학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이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H00023).

** 교신저자 : 이선희, (305-764)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sunhee_lee@cnu.ac.kr

미지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심리학 및 관련 분야에서는 최근 유학생의 적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예: Smith & Khawaja, 2011; Wei, Liao, Heppner, Chao, & Ku, 2012; Wu & Mak, 2012; Yan & Berliner, 2011; Zhang & Goodson, 2011),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의 적응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예: 김현옥, 2011; 송원영, 리난, 2008; 유찬우, 2011; 임수진, 한규석, 2009).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부로서, 우리나라에 유학 온 외국학생들의 적응 과정에서의 상태 학습목표지향성(state learning goal orientation; Elliot & Church, 1997; Stevens & Gist, 1997)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이 외국인 유학생의 효과적인 적응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유학생의 성공적 적응, 즉, 준거를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차문화적 적응(cross-cultural adjustment)은 해당 국가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된다(Black & Gregersen, 1991). 유학생 적응에 관한 최근의 국내외 연구들(예: 김현옥, 2011; 송원영, 리난, 2008; 유찬우, 2011; 임수진, 한규석, 2009; Smith & Khawaja, 2011; Wei et al., 2012; Wu & Mak, 2012; Yan & Berliner, 2011; Zhang & Goodson, 2011)을 살펴보면, 교차문화적 적응의 조작적 정의로 우울, 외로움, 불안, 사회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등의 변인들이 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준거변인들은 대부분 Ward와 Kennedy(1999)가 제안한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의 적응에 대한 64개의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Zhang과 Goodson(2011)의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러한 준거들을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 유학생이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며 사회적으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적응의 중요한 지표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학생들의 경우 단순히 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적응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일정 수준이상의 학업적인 성취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준거의 하나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 유학생과 유사한 적응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기대되는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조직심리학적 연구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이민자, 망명자 등과 구분하여 유학생과 해외 파견 근로자 등을 '일시해외체류자(sojourner)'로 분류해왔다(Church, 1982).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들(Bhaskar-Shrinivas, Harrison, Shaffer, & Luk, 2005; Hechanova, Beehr, & Christiansen, 2003)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해외 파견 근로자의 효과성을 심리사회적 적응과 아울러 직무만족, 직무수행, 조직귀속 등의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포괄적으로 개념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격 5요인과 해외 파견 근로자의 적응 및 수행과의 관계에 대한 Shaffer 등(Shaffer, Harrison, Gregersen, Black, & Ferzandi, 2006)의 연구는 문화적 적응, 상호작용 적응, 직무 적응, 이직의도, 맥락수행, 과업수행 등의 준거변인을 사용하였으며, 준거변인들에 따라 성격변인들의 준거타당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유학생에게 기대되는 다중적인 요구들과 특정 예측변인이 서로 다른 준거변인들과 차별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의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적응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준거변인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성공적 적응의 준거로 일반적으로 유학생의 적응 지표로 사용되는 본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학업적 '적응'수준과 함께 유학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업수행'을 준거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유학생의 적응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이주국에 대한 사회적 적응의 한 지표로 '한국에 대한 태도'를 준거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학생들은 한국이라는 환경뿐만 아니라

소속대학에 대한 사회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조직에 대한 사회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결과변인인 정서적 조직몰입(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Bauer, Bodner, Erdogan, Truxillo, & Tucker, 2007)을 학교상황에 적용하여 ‘학교에 대한 정서적 몰입’을 준거변인으로 추가하였다.

상태 학습목표 지향성과 유학생의 효과적 적응

목표지향성(goal orientation)은 과제 수행 상황에서 개인들이 암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말한다(Button, Mathieu, & Zajac, 1996). 연구자들에 따라 목표지향성에 대한 개념적 틀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기의 연구자들은 목표지향성을 학습목표지향성과 수행목표지향성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학습목표지향성은 성취 상황에서의 새로운 역량을 학습하여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향성을 말한다.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스스로의 지각에 관심을 두어, 실패 가능성이 높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는 특징을 가진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학습목표지향성은 수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수행에 대한 피드백 추구 행동 등과 같은 다양한 동기관련 변인들 및 학습, 직무수행 등의 결과변인들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sher & Ford, 1998; Payne, Youngcourt, & Beaubien, 2007; VandeWalle & Cummings, 1997).

성공적인 학업 수행이 유학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이며 새로운 사회 문화적 환경 및 언어에 적응하는 과정도 또 하나의 학습과정이라고 볼 때, 학습목표지향성은 유학생의 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즉,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은 유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여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초기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할 것이다. 또한 비록 부정적인 수행 피드

백을 받더라도 이를 실패로 지각하여 낙담하기 보다는 학습의 기회로 삼아 지속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경향성은 보다 나은 학습성과 및 심리사회적 적응을 가져 올 것이며 아울러 한국 및 학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인 연구결과들도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스스로가 새로운 문화와 직무(또는 학업)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지각하며, 높은 직무수행 및 낮은 조기귀국 의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이연주, 2007; Gong & Fan, 2006; Wang & Takeuchi, 2007).

그런데 이러한 목표지향성과 일시해외체류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학습목표지향성을 안정된 성격특질로 개념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비록 목표지향성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은 목표지향성을 안정적인 성격특질로 개념화 하였지만, 이후 연구자들은 목표지향성이 안정된 특질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한 상태(state) 변인으로도 개념화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Elliott & Church, 1997; Stevens & Gist, 1997). 상태 목표지향성은 특질 목표지향성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나 특정한 과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질 목표지향성과 구별된다. 실제로 현장연구에서도 상황적인 단서를 이용하여 학습목표지향성의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예: Kozłowski et al., 2001),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이 특질 학습목표지향성보다 학습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메타분석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Payne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목표지향성을 상태적인 특성으로 개념화하고, 이러한 상태적인 학습목표지향성이 유학생의 적응과 수행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 한 변인의 예측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준거에 대한 기존의 예측변인들을 통제된 후의 증분타당도(Incremental validity)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Judge, Jackson, Shaw, Scott, & Rich, 2007)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해외 파견 근로자 및 유학생의 적응 및 수행의 예측변인으로 많은 관심

을 받고 있는 성실성(conscientiousness)(예: 이연주, 2007; Caligiuri, 2000; Dalton & Wilson, 2000; Ones & Viswesvaran, 1999; Shaffer et al., 2006; Swagler & Jome, 2005; Ward, Leong, & Low, 2004)을 통제 한 후의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의 예측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성격 5요인 중의 하나인 성실성은 성격 변인들 중에서 가장 일관되게 해외 파견 근로자 및 유학생의 적응 및 수행 관련 준거변인들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실성은 해외 파견근로자의 직무수행(Caligiuri, 2000; Dalton & Wilson, 2000; Shaffer et al., 2006), 본인이 평가한 적응정도(이연주, 2007; Swagler & Jome, 2005), 그리고 우울증과 사회적 어려움(Ward et al., 2004), 이직의도(Shaffer et al., 2006)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해외 파견근로자 선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policy capturing 방법을 사용한 Ones와 Viswesvaran의 연구(1999)에서도 성실성이 다양한 준거들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 성격 특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상태적인 학습목표지향성이 성실성을 통제 한 후에도 유학생의 적응과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였다.

- 가설 1.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은 성실성을 통제 한 후에도 유학생들의 효과적 적응 및 수행(즉, 학업 및 사회적 적응, 학업수행, 학교에 대한 정서적 몰입, 한국에 대한 태도)과 정적인 상관을 가질 것이다.

상태 학습목표지향성과 교차문화훈련의 효과성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이 유학생에 대한 교차문화훈련의 효과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교차문화훈련이란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을 말한다(Littrell, Salas, Hess, Paley, & Riedel, 2006; Morris & Robie, 2001).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교차문화훈련이 일시 해외체류자들의 성공적 적응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Black & Mendenhall, 1990; Kealey & Protheroe, 1996; Littrell et al., 2006; Morris & Robie, 2001). 예를 들어, 교차문화훈련의 효과성에 대한 Deshpande와 Viswesvaran(1992)의 메타분석 연구는 교차문화훈련과 과업수행 그리고 적응과의 수정된 상관계수가 각각 .39 그리고 .43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교차문화훈련의 효과성에 대한 Morris 와 Robie(2001)의 메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측정 오류 등으로도 설명되지 않은 상관계수들 간의 변량이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차문화훈련의 효과성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의 수준에 따라 교차문화훈련의 효과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다양한 교차문화훈련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발된 Fan과 Wanous(2008)의 유학생용 교차문화훈련에 관심을 두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조직에 대한 개인의 사전 기대가 실제 현실과 일치할수록 적응 과정에서의 만족도가 높고 실제로 더 잘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부응이론(met expectations theory, Porter & Steers, 1973; Wanous, Poland, Premack, & Davis, 1992)에 근거한다. 즉, 유학생들에게 사전에 적응해야 할 문화와 수행해야 할 과업에 대해 가능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실제로 Caligiuri 등(Caligiuri, Phillips, Lazarova, Tarique, & Burgi, 2001)은 이주국의 문화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주는 교차문화훈련일수록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러한 효과는 기대 일치에 의해 매개된다고 보고하였다. Fan과 Wanous는 이러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기대부응이론을 바탕으로 교차문화훈련을 개발하여 이를 한 미국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총 4회에 걸쳐 최장 9개월간 적응도를 측정 한 결과, 기대부응이론에 근거한 새로운 교차문화훈련을 받은 집단은 기존 훈련 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수준을 보였는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대 부응 이론에 기초한 교차문화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훈련이 사전에 개인들이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갖는 것을 막아 현실 상황에서의 좌절 경험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학습목표지향성의 정의상, 한 개인이 학습목표지향적일 때는 새롭게 적응해야 할 문화나 수행해야 할 직무가 사전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추구하며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기대를 제공하는 교차문화훈련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Gruman 등(Gruman, Saks, & Zweig, 2006)은 피드백이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에 비해 조직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사회화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현실적인 기대를 하도록 도와주는 교차문화훈련은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2. 기대부응이론에 기초한 교차문화훈련은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보다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법

연구 참여자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10년도 1학기에 A대학교의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 새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입학 첫 주에 대학 주관으로 실시하는 외국인 학생 오리엔테이션 참여한 학생들에게 연구 소개서와 참여 동의서를 배부하였다. 이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무선으로 통제집단과 교차문화훈련집단(이후는 훈련집단으로 칭함)으로 배치하였다. 통제집단에 배치된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 참석 후 1차 설문을 작성한 후 돌아갔다. 훈련집단에 배치된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 참석 후 옆방으로 장소를

옮겨 본 연구에서 개발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1차 설문을 작성하였다. 1차 설문에는 성실성, 상태 학습목표지향성, 사전 기대 척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차 설문 응답자는 총 75명이었으며, 이 중 훈련집단 참여 학생이 35명, 통제집단 참여 학생이 40명이었다¹⁾.

1차 설문에 응답한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56.0%)가 남자(44.0%)보다 약간 많았고, 대부분(86.5%)이 미혼이었으며, 대학원생(65.3%)이 학부생(34.7%)보다 약간 많았다. 과반수 이상이 중국 국적(70.7%)이었으며, 그 외에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몽골 등 총 11개 나라의 유학생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25.2(표준편차=3.2)세이었으며, 입학 당시의 한국체류기간은 평균 25.8(표준편차=17.0)개월이었다.

2차 설문은 훈련 실시 1개월 후에 이메일을 이용해 실시하였다. 2차 설문 참가자는 63명(1차 참여자의 84.0%)이었다. 이 중 통제집단과 훈련집단이 각각 34명과 29명으로, 두 집단 모두에서 1차 설문 참여자 중 각각 6명이 2차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2차 설문에서는 학습목표지향성을 측정하였다. 훈련 실시 3개월 후 다시 이메일을 이용해 3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3차 설문 참여자는 62명(2차 참여자의 98.4%)이었다. 3차 설문에서는 학습목표 지향성과 아울러 준거변인인 적응, 학교에 대한 정서적 몰입, 그리고 한국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기말 성적이 발표된 후 1학기 성적을 수집하였다. 총 59명(3차 참여자의 95.2%)이 1학기 성적을 제공하였다. 그림 1은 전체적인 연구절차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모든 설문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언어를 선택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1차 설문 참여자 75명 중 49명(65.3%)이 중국어를, 17명(22.7%)이 영어를, 나머지 9명(12%)이 한국어 설문지를 선택하였다.

1) 처음에 각 집단에 배치된 학생 수는 동일하였으나, 훈련집단에 배치된 학생들 중에는 수업 등의 이유로 인해 훈련을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훈련집단 참여자 수가 통제집단보다 적게 되었다.



그림 17. 연구절차

유학생 훈련 프로그램 개발 절차 및 내용

기대부응이론에 근거한 외국인 유학생 교차문화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요구분석(need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구분석은 훈련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Goldstein & Ford, 2002). 요구분석 참여자는 해당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19명, 외국인 유학생 담당 대학직원 2명, 그리고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수 2명이었다. 학생들은 4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대학직원과 교수에 대해서는 개인 면접을 실시하였다.

요구분석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은 크게 언어, 학업,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세 분야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에게 해당 주제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적응을 위한 구체적 제안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각각의 분야에 대해, 첫째, 현재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사례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이 가지기 쉬운 비현실적인 기대와 그러한 기대의 비현실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공유하였다. 사례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2명의 '선배' 외국인 유학생(중국인 1명, 터키인 1명)을 인터뷰하는 형식의 동영상을 이용하였다. 둘째, 해당 동영상 시청 후, 훈련 참여자들끼리 팀을 짜서 관련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 다시 동영상을 이용하여 선배 유학생들이 해당 분야의 적응에 도움이 되었던 행동 요령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진행자가 이를 정리하여 적응을 돕

기 위한 구체적 행동 전략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훈련은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 내용은 파워포인트에 한국, 영어, 중국어로 제시하였다.

훈련 프로그램의 안면 타당도를 검증하고 기존 유학생들의 피드백을 얻기 위해 재학 중인 유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예비 훈련을 실시하였다. 예비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및 전달 방법에 대한 최종 수정을 실시하였다. 최종 훈련 프로그램은 약 1시간 30분 소요되었다²⁾.

측정도구

성실성: 성실성은 Costa와 McCrae(1992)가 개발한 NEO-FFI(NEO Five-Factor Inventory)의 성실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12개 문항(예: "분명한 목표가 있고, 이를 위해 계획을 세워 일해 나간다")에 대해 5점 리커트식 척도로 동의 정도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간 일치도 Cronbach's alpha는 .80이었다.

상태 학습목표지향성: Elliot과 Church (1997)의 상태 학습목표지향성 문항을 유학생의 적응 상황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예: "유학 기간 중에 배우기는 어려워도 내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업을 듣고 싶다"). 이 척도는 총 6개 문항에 대해 7점 리커트식 척도로 동의 정도를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차례에 걸쳐 측정된 본 연구에서의 문항간 일치도 Cronbach's alpha는 .89-.93이었다.

2) Fan과 Wanous (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교차문화훈련도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사전 기대: 기대부응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훈련프로그램이 기존 신입유학생 오리엔테이션에 비해 실제적으로 사전 기대를 낮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전 기대를 측정하였다. 요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현실과 다른 기대를 하는 내용에 대한 9개의 항목을 개발하고(예: "이 곳에서 한국어를 주로 쓰고 살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간 일치도 Cronbach's alpha는 .81이었다.

유학생활 적응: 유학생의 적응은 이연주(2007)가 사용한 19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Gong과 Fan(2006)이 미국에 재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 및 사회적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예: "학업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응답 척도는 '1=전혀 잘 적응하지 못함'에서 '7=매우 잘 적응함'의 7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간 일치도 Cronbach's alpha는 .95이었다.

학업수행: 학업수행은 1학기 학점으로 측정하였다. 척도는 0-45점이다.

학교에 대한 정서적 몰입도: 학교에 대한 정서적 조직 몰입도는 Allen과 Meyer(1990)의 정서적 몰입 문항을 학교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 "이 대학교에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응답자들은 7점 리커트식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문항간 일치도 Cronbach's alpha는 .78이었다.

한국에 대한 태도: 유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이 생활하기에 얼마나 좋은가하는 측면에 대해 5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예: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기꺼이 도와준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간 일치도 Cronbach's alpha는 .83이었다.

통제변인: 통제변인으로는 성별(여성=0, 남성=1), 결혼여부(미혼=0, 기혼=1), 국적(비중국=0, 중국=1), 학위과정(학부=0, 대학원=1), 입학 당시의 한국체류기간(개월) 등을 조사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각 준거변인에 대해 모형 1에서 성별, 결혼여부, 한국체류기간, 중국국적 여부, 학위과정 등의 통제변인과 새로운 적응훈련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예측변인으로 사용하였다. 통제 집단, 즉 기존의 대학 오리엔테이션만을 참가한 집단은 0으로, 본 연구의 교차문화훈련에 참가한 집단은 1로 코딩하였다. 모형 2에서는 예측변인으로 성실성을 추가하였다. 모형 3에서는 학습목표지향성, 그리고 모형 4에서는 학습목표지향성과 훈련프로그램 참여여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였다. 학습목표지향성은 상호작용항과의 다중공선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값에서 평균값을 뺀 중심화(centering) 변환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목표지향성이 상태적인 특성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3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이 중에서 3차에 측정된 준거변인(즉, 적응, 한국태도, 학교 몰입)에 대한 예측변인으로는 2차에 측정된 학습목표지향성을, 학점에 대해서는 3차에 측정된 학습목표지향성을 예측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준거변인의 측정시점보다 앞서 측정된 예측변인을 사용함으로써 공통방법에 의한 변량(common method variance)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인과적 추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연구 관심 주제의 특성상 표본의 크기가 상당히 작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표본의 크기는 통계적 검증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1종 오류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05가 아닌 .10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표본 수가 적을 때 통계적 검증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1종 오류 수준을 .10으로 하는 것은 방법론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추천되고 있는 방법이다(Aguinis & Harden, 2009; Stevens, 1996).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변인명(측정)	1	2	3	4	5	6	7	8
1. 성실성(1차)	(.80)							
2. 학습목표지향(1차)	.46***	(.89)						
3. 학습목표지향(2차)	.21	.50***	(.93)					
4. 학습목표지향(3차)	.34***	.53***	.87***	(.92)				
5. 적응(3차)	.45***	.46***	.53***	.57***	(.95)			
6. 학업수행(4차)	.06	.11	.32**	.46***	.26**	-		
7. 학교 정서 몰입(3차)	.26*	.21	.23	.19	.46***	-.20	(.78)	
8. 한국 태도(3차)	.19	.16	.32**	.28**	.44***	.11	.30**	(.83)
N	62	62	62	62	62	59	62	62
평균	3.81	6.21	5.95	5.95	5.07	3.47	4.32	3.20
표준편차	0.53	0.97	1.11	0.93	0.96	0.86	0.91	0.86

* $p < .10$, ** $p < .05$, *** $p < .01$

괄호안의 숫자는 Cronbach's alpha값임

결 과

표 1은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그리고 Cronbach's alpha로 측정된 척도의 문항간 일치도를 보여주고 있다. 3차에 걸쳐 측정된 상태 학습목표지향성간의 상관계수는 1차(입학시점)와 2차(입학 1개월 후)간의 상관계수가 .50, 1차와 3차(입학 3개월 후)의 상관계수가 .53, 그리고 2차와 3차의 상관계수가 .87로 나타났다. 예측변인들과 준거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실성은 적응, 학교에 대한 정서적 몰입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학업수행과 한국에 대한 태도와는 관련이 없었다. 학습목표지향성은 측정시점에 따라 준거변인들과의 관련성에 차이가 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1차에 측정된 학습목표지

향성은 유학생활동에 대한 적응도와만 유의한 상관을 보인 반면, 2차와 3차에 측정된 학습목표지향성은 적응과 학업수행 그리고 한국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준거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적응은 다른 모든 준거변인들과 중간 수준의 상관을 보인 반면, 학업수행은 학교 및 한국에 대한 태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가설 검증에 앞서, 기대부응이론에 근거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대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교차문화훈련에 참가한 유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향후 적응에 대한 사전 기대가 더 낮았는지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사전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결혼여부, 한국체류기간, 중국인 여부, 학위과정 등의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기대했던 바

표 2. 사전기대를 예측하는 변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N=74)

변인	B	SE B
여성(=0) vs. 남성(=1)	0.32**	0.15
미혼(=0) vs. 기혼(=1)	-0.43**	0.22
한국체류기간(개월)	0.01	0.00
비중국(=0) vs. 중국(=1)	-0.38**	0.16
학부(=0) vs. 대학원(=1)	0.45***	0.16
통제집단(=0) vs. 훈련집단(=1)	-0.30**	0.14

** $p < .05$, *** $p < .01$

표 3. 유학생의 적응 및 수행 준거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회귀분석 결과 요약

예측변인	적응		한국태도		학교몰입		성적	
	B	(SE B)	B	(SE B)	B	(SE B)	B	(SE B)
모형 1								
성별	-0.28	(0.25)	0.29	(0.22)	-0.04	(0.33)	-0.47***	(0.15)
결혼 여부	-0.80**	(0.38)	-0.18	(0.33)	-0.59	(0.51)	0.06	(0.23)
한국체류기간	0.01*	(0.01)	-0.01	(0.01)	0.00	(0.01)	0.00	(0.00)
중국	-0.68**	(0.28)	-0.63**	(0.24)	0.31	(0.37)	-0.41**	(0.16)
대학원	0.39	(0.27)	0.31	(0.23)	-0.15	(0.35)	1.14***	(0.16)
훈련참여여부	0.16	(0.24)	0.05	(0.21)	0.22	(0.32)	-0.12	(0.14)
R^2	.21**		.22**		.08		.67***	
모형 2								
성별	-0.34	(0.22)	0.27	(0.22)	-0.09	(0.32)	-0.47***	(0.15)
결혼 여부	-0.66**	(0.34)	-0.14	(0.33)	-0.48	(0.49)	0.06	(0.23)
한국체류기간	0.01*	(0.01)	-0.01	(0.01)	0.00	(0.01)	0.00	(0.00)
중국	-0.62**	(0.25)	-0.62**	(0.24)	0.35	(0.35)	-0.41**	(0.16)
대학원	0.32	(0.24)	0.28	(0.23)	-0.21	(0.34)	1.14***	(0.16)
훈련참여여부	0.28	(0.21)	0.09	(0.22)	0.31	(0.31)	-0.12	(0.14)
성실성	0.78 ***	(0.20)	0.27	(0.19)	0.64 **	(0.28)	0.01	(0.13)
모형2 R^2 -모형1 R^2	.18***		.03		.08**		.00	
모형 3								
성별	-0.29	(0.20)	0.30	(0.20)	-0.05	(0.31)	-0.40***	(0.14)
결혼 여부	-0.63**	(0.31)	-0.12	(0.32)	-0.46	(0.48)	0.02	(0.22)
한국체류기간	0.01*	(0.01)	-0.01	(0.01)	0.00	(0.01)	0.00	(0.00)
중국	-0.48**	(0.23)	-0.53**	(0.24)	0.46	(0.35)	-0.31**	(0.16)
대학원	0.16	(0.22)	0.19	(0.23)	-0.33	(0.34)	1.04***	(0.15)
훈련참여여부	0.14	(0.20)	0.01	(0.21)	0.20	(0.31)	-0.19	(0.14)
성실성	0.64***	(0.18)	0.19	(0.19)	0.53 *	(0.28)	-0.13	(0.13)
상태학습목표지향성	0.33***	(0.09)	0.19*	(0.10)	0.26 *	(0.14)	0.23***	(0.08)
모형3 R^2 -모형2 R^2	.12***		.05*		.05*		.05***	
모형 4								
성별	-0.31	(0.21)	0.29	(0.22)	0.01	(0.32)	-0.43***	(0.14)
결혼 여부	-0.62*	(0.31)	-0.11	(0.33)	-0.52	(0.48)	0.06	(0.21)
한국체류기간	0.01*	(0.01)	-0.01*	(0.01)	0.00	(0.01)	0.00	(0.00)
중국	-0.47**	(0.23)	-0.52**	(0.24)	0.42	(0.35)	-0.26	(0.16)
대학원	0.15	(0.22)	0.19	(0.23)	-0.30	(0.34)	1.00***	(0.15)
훈련참여여부	0.14	(0.20)	0.01	(0.21)	0.17	(0.31)	-0.18	(0.13)
성실성	0.66***	(0.19)	0.20	(0.20)	0.44 *	(0.29)	-0.10	(0.13)
상태학습목표지향성	0.37***	(0.13)	0.23	(0.14)	0.08	(0.20)	0.37***	(0.11)
집단*목표지향성	-0.09	(0.18)	-0.07	(0.19)	0.34	(0.28)	-0.27*	(0.14)
모형4 R^2 -모형3 R^2	0		0		.02		.02*	

* $p < .10$, ** $p < .05$, *** $p < .01$

와 같이, 훈련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사전 기대가 낮았다(비표준화된 회귀계수 $B=-.30, p < .01$)(표 2 참조).

표 3은 각 준거변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우선,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아니지만, 모형 1은 기대부응이론에 근거한 문화적응훈련의 주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문화적응 훈련은 모든 결과 변인 상에서 유의한 주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통제변인들과 훈련참여 여부를 통제한 후의 성실성의 효과를 보여준다. 그 결과, 상관분석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성실성이 높을수록 본인이 평가한 적응도가 높고($B=.78, p < .01$), 학교에 대한 정서적인 몰입도가 높은 것($B=.64, p < .0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실성은 한국에 대한 태도와 성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격적인 가설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은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이 유학생들의 적응 및 수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것이었다. 통제변인, 훈련 참여 여부, 그 리고 성실성을 통제한 후의 상태 학습 목표지향성의 효과를 검증한 모형 3의 결과를 보면,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적응수준이 높고($B=.33, p < .01$), 한국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B=.19, p < .10$), 학교에 대한 정서적 몰입($B=.26, p < .10$)과 성적($B=.23, p < .01$)이 높았다. 모형 3의 R^2 의 변화량은 통제변인과 성실성의 설명력에 추가적으로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의 증분타당도를 보여주는데, 적응에 대해서는 12%, 그 외의 준거변인들에 대해서는 각각 5%의 증분타당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종합적으로 가설 1을 지지하는 것이다.

모형 4의 상호작용항은 교차문화훈련의 효과가 학습 목표지향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고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준거변인 중 학업수행에 서만 상태 학습목표지향성과 교차문화훈련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B=-0.27, p < .10$). 구체적으로 기대부응이론에 기초한 교차문화훈련은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이 낮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만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이러한 결과는 기대부응이론에 기초한 교차문화훈련이 상태 학습목표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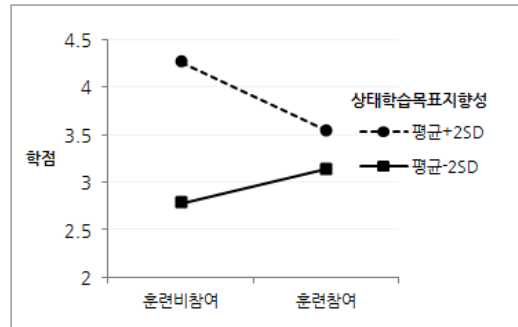


그림 18. 유학생의 학업수행에 대한 교차문화훈련과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의 상호작용효과

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가설 2는 학업 수행에 대해서만 지지되었고, 다른 준거변인들에 대해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유학생들이 적응 과정에서의 학습목표지향성의 역할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습목표지향성을 상태적인 개인차 변인으로 개념화하고, 이러한 개인차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새로운 문화, 조직, 그리고 학업에 적응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상태적인 학습목표지향성의 정도에 따라 기대부응이론에 근거한 교차문화훈련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은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성실성을 통제하고도 유학생의 적응 및 수행에 대한 추가적인 예측타당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학업 및 사회적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더 좋은 학업 성적을 보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학교에 대한 정서적인 몰입도가 높고, 한국에 대한 평가도 더 긍정적이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자기보고식 준거변인을 예측변인인 학습목표지향성의 측정시점과 2개월 간격을 두고 측정하였으며 자기

보고식 준거변인 외에 학점을 준거변인으로 사용함으로써 공통방법에 의한 변량(common method variance)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연주, 2007; Gong & Fan, 2006; Wang & Takeuchi, 2007)과는 달리 유학생 적응 과정에서의 상태적인 학습목표지향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Kanfer(1990)는 동기와 관련된 개인차 변인들이 수행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이론화하면서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행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먼(distal)’ 동기 요인과 행동과 가까운 ‘근접(proximal)’ 동기 요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먼’ 동기에 해당되는 성격, 욕구, 인지능력 등과 같이 안정적인 개인 변인들은 수행과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비해, 자기효능감, 목표 등의 근접 동기요인들은 특정 과제나 상황 및 시간에 따라 변화 가능하며 수행과 보다 직접적이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Ackerman, Kanfer, & Goff, 1995; Colquitt & Simmering, 1998; Martocchio & Judge, 1997). 유학생 적응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성격과 같은 인과과정상 수행과 멀리 떨어진 예측 변인들에 관심을 둔 반면, 본 연구는 유학생의 적응 행동과 보다 근접한 개념인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의 역할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문적 공헌이 있다고 하겠다.

적용적인 차원에서도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은 외부적인 개입을 통해 변화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예를 들어,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차문화훈련을 고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비롯하여 외국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 해외파견 근로자, 해외 파병 군인 등 다양한 일시 해외 체류자의 적응을 돕기 위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Dragoni(2005)는 조직 및 집단의 풍토와 리더-구성원의 관계 등이 개인들의 목표지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를 유학생 장면에 적용하면, 학교, 과, 그리고 수업에서 단기적인 성취보다는 장기적인 학습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북돋우고 지지적인 교수-학생간의 관계를 가질 때 유학생들의 상태 학습

목표지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가설을 집단 혹은 학교 수준의 연구를 통해 검증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학습목표지향성의 연구 차원에서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입학시점(1차)과 그 후 1개월 후(2차)에 측정된 학습목표지향성 측정치간의 상관관계수가 .53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의 크기를 고려할 때 이는 단순히 측정도구의 신뢰도(혹은 비신뢰도)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실제로 변화된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추론되며, 이러한 결과는 학습 목표지향성이 상태적인 특성이라는 가정을 지지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반복 측정된 측정 점수간의 상관은 측정 간격과 반비례하는 것과는 달리, 측정시점이 상대적으로 근접한 1차와 2차간(1개월 간격)의 상관관계수($r=.53$)가 2차와 3차간(2개월 간격)의 상관관계수($r=.87$)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학습목표지향성의 변화가 단순히 측정 간격 때문에 생긴 결과라기보다는 상황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 즉, 입학 시점과 1개월 후 측정된 학습목표지향성의 상관이 중간 수준에 머무른 것은 한 달 동안의 대학(원) 생활에 대한 실제 경험에 의해 유학생생활에 대한 학습목표지향성 수준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반면, 2차와 3차간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1개월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간 것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연구의 자료로는 이러한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연구 설계를 통해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이 시간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패턴에도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지향성 수준이 쉽게 변화할 수 있으며, 변화의 방향에도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새로운 과제 수행 상황에서 개인들의 학습목표지향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 추세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상의 개인차가 준거변인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주

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주된 관심은 기대부응이론에 근거한 교차문화훈련의 효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지 않고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의 수준에 따라 다른 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학업수행에 대해서만 교차문화훈련과 학습목표지향성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향후 유학생들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 적응 전략을 공유하는 활동이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지만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은 경우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졌다. 이와 같이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교차문화훈련의 내용에 차별을 두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적용적인 의미를 지닌다. 향후 이러한 효과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러한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기대부응이론에 근거한 문화적응 훈련이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기존 연구(Fan & Wanous, 2008)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를 제외한 다른 준거변인에 대해서는 교차문화훈련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Fan과 Wanous의 연구에서도 기대부응이론에 근거한 문화적응 훈련의 효과가 초기에는 미미하다가 6개월 이후부터 명확하게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적응을 측정할 시점이 훈련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에는 너무 짧았던 것이 아닌 가 추론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여건상 더 오랜 기간의 적응과정을 살펴볼 수 없었던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에는 적어도 6개월 혹은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종단 연구를 통해 교차문화훈련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이러한 장기적인 종단연구는 변인에 대한 측정회수를 증가시켜 학습목표지향성과 같은 상태적인 예측변인의 변화 추세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비록 본 연구의 주된 관심 주제는 아니었지만, 중국 학생들이 다른 국적의 유학생들보다 유학생들에 대한 사전기대가 낮고 실제로 입학 후 3개월 후 스스로 평가한 적응 수준도 낮으며 한국에 대한 태

도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 유학생은 우리나라의 전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의 대다수(2010년 기준 69%, 교육과학기술부, 201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매우 우려할 만하다. 향후 중국인 유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심리학적인 연구가 요청되며, 특히 이를 위해서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유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한국인 대학생 그리고 교수 등의 다른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새로운 것을 학습하려는 태도가 유학생과 같이 다른 문화에서의 특정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들의 적응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유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문화간 교류인력들의 적응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0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www.iom-mrtc.org/stats/stats01_view.php?idx=1646&pagenumber=1&name=Subject&stext=에서 2012년 1월 27일 인출.
- 김현옥 (2011). 재한 동아시아 유학생의 문화적응, 지각된 차별감, 민족유형이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동아일보 (2011,11,21). 외국인 유학생 10만 시대... 추악한 제노포비아: 백인에게는 손 내밀고 中-흑인 학생에게는 안면 싹 바뀌. <http://news.donga.com/3/all/20111121/42026944/1>에서 2012년 1월 27일 인출.
- 매일경제신문 (2012, 2, 2). 외국인유학생 10만명 한국캠퍼스 누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73244>에서 2012년 1월 27일 인출.
- 송원영, 리난 (2008).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유학초기 심리적 적응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5(2), 159-173.

- 유찬우 (2011). 성격강점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및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이연주 (2007). 학습목표지향성과 5요인 성격특질의 타 문화적응에 대한 상대적 예측타당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수진, 한규석 (2009).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413-427.
- 한겨레신문 (2012, 2, 20). 대학들 외국인유학생 관리 '낙제점.'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64335.html>에서 2012년 1월 27일 인출.
- Ackerman, P. L., Kanfer, R., & Goff, M. (1995). Cognitive and noncognitiv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complex skill acquisi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1, 270-304.
- Aguinis, H., & Harden, E. E. (2009). Sample size rules of thumb: Evaluating three common practices. In C. E. Lance & R. J. Vandenberg (Eds.), *Organizational and Social Sciences: Doctrine, verity, and fable in the organizational and social sciences (267-286)*. New York: Routledge/Psychology Press.
- Allen, N. J., & Meyer, J. P. (1990). 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s of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3, 1-18.
- Bauer, T. N., Bodner, T., Erdogan, B., Truxillo, D. M., & Tucker, J. S. (2007). Newcomer adjustment during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 meta-analytic review of antecedents, outcomes, and method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 707-721.
- Bhaskar-Shrinivas, P., Harrison, D. A., Shaffer, M. A., & Luk, D. M. (2005). Input-based and time-based models of international adjustment: Meta-analytic evidence and theoretical extens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8(2), 257-281.
- Black, J. S., & Gregersen, H. B. (1991). Antecedents to cross-cultural adjustment for expatriates in Pacific Rim assignments. *Human Relations*, 44, 497-515.
- Black, J. S., & Mendenhall, M. (1990). Cross-cultural training effectiveness: A review and a theoretical framework for future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5(1), 113-136.
- Button, S. B., Mathieu, J. E., & Zajac, D. M. (1996). Goal orientation in organizational research: A conceptual and empirical found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7, 26-48.
- Caligiuri, P. M. (2000). The Big F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expatriate success. *Personnel Psychology*, 53, 67-88.
- Caligiuri, P., Phillips, J., Lazarova, M., Tarique, I., & Burgi, P. (2001). The theory of met expectations applied to expatriate adjustment: The role of cross-cultural train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12(3), 357-372.
- Church, A. (1982). Sojourner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9, 540-572.
- Colquitt, J. A., & Simmering, M. J. (1998). Conscientiousness, goal orientation, and motivation to learn during the learning proces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 654-665.
- Costa, P. T., & McCrae, R. R. (1992). *Professional manual for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R) and NEO Five Factor Inventory (NEO-FFI)*.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Dalton, M., & Wilson, M. (2000). The relationship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to job performance for a group of Middle Eastern

- expatriate manag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8, 250-258.
- Deshpande, S. P., & Viswesvaran, C. (1992). Is cross-cultural training of expatriate managers effective? A meta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6, 295-310.
- Dragoni, L. (2005). Understanding the emergence of state goal orientation in organizational work groups: The role of leadership and multilevel climate percep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084-1095.
- Elliot, A. J., & Church, M. A. (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18-232.
- Fan, J., & Wanous, J. P. (2008). Organizational and cultural entry: A new type of orientation program for multiple boundary crossing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 1390-1400.
- Fisher, S. L., & Ford, J. K. (1998). Differential effects of learner effort and goal orientation on two learning outcomes. *Personnel Psychology*, 51, 397-420.
- Goldstein, I. L., & Ford, J. K. (2002). *Training in Organizations* (4th edition). Belmont, CA: Wadsworth.
- Gong, Y., & Fan, J. (2006). Longitudinal examination of the role of goal orientation in cross-cultural adjust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 176-184.
- Gruman, J. A., Saks, A. M., & Zweig, D. I. (2006).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tactics and newcomer proactive behaviors: An integrative stud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 90-104.
- Hechanova, R., Beehr, T., & Christiansen, N. (2003).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ployees' adjustment to overseas assignment: A meta-analytical review.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2, 213-236.
- Judge, T. A., Jackson, C. L., Shaw, J. C., Scott, B. A., & Rich, B. L. (2007). Self-efficacy and work-related performance: An integral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1), 107-127.
- Kanfer, R. (1990). Motivation theory and industrial/organizational psychology. In M.D. Dunnette & L. Hough (Eds.).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ume 1: Theory in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pp. 75-170).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Kealey, D. J., & Protheroe, D. R. (1996). The effectiveness of cross-cultural training for expatriates: An assessment of the literature on the issu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2), 141-165.
- Kozlowski, S. W. J., Gully, S. M., Brown, K. G., Salas, E., Smith, E. M., & Nason, E. R. (2001). Effects of training goals and goal orientation traits on multidimensional training outcomes and performance adaptabilit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85, 1-31.
- Littrell, L. N., Salas, E., Hess, K. P., Paley, M., & Riedel, S. (2006). Expatriate preparation: A critical analysis of 25 years of cross-cultural training research.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5(3), 355-388.
- Martocchio, J. J., & Judge, T. A. (1997). Relationship between conscientiousness and learning in employee training: Mediating influences of self-decept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 764-773.
- Morris, M. A., & Robie, C. (2001).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cross-cultural training on expatriate performance and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5(2), 112-125.

- Ones, D. S., & Viswesvaran, C. (1999). Relative importance of personality dimensions for expatriate selection: A policy capturing study. *Human Performance, 12*(3-4), 275-294.
- Payne, S. C., Youngcourt, S. S., & Beaubien, J. M. (2007). A meta-analytic examination of the goal orientation nomological ne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 128-150.
- Porter, L. W., & Steers, R. M. (1973). Organizational work and personal factors in employee turnover and absenteeism. *Psychological Bulletin, 80*, 151-176.
- Shaffer, M. A., Harrison, D. A., Gregersen, H., Black, J. S., & Ferzandi, L. A. (2006). You can take it with you: Individual differences and expatriate effectiven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 109-125.
- Smith, R. A. & Khawaja, N. G. (2011). A review of the acculturation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6), 699-713.
- Stevens, C. K., & Gist, M. E. (1997). Effects of self-efficacy and goal orientation on negotiation skill maintenance: What are the mechanisms? *Personnel Psychology, 50*, 955-978.
- Stevens, J. P. (1996).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3th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wagler, M. A., & Jome, L. R. M. (2005).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acculturation on the adjustment of North American sojourners in Taiw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527-536.
- VandeWalle, D., & Cummings, L. L. (1997). A test of the influence of goal orientation on the feedback-seeking proc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 390-400.
- Wang, M., & Takeuchi, R. (2007). The role of goal orientation during expatriation: A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 1437-1445.
- Wanous, J. P., Poland, T. D., Premack, S. L., & Davis, K. S. (1992). The effects of met expectations on newcomer attitudes and behavior: A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 288-297.
- Ward, C. W., & Kennedy, A. (1999). The measurement of socio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4), 659-677.
- Ward, C., Leong, C. H., & Low, M. (2004). Personality and sojourner adjustment: An exploration of the Big Five and the cultural fit proposi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2), 137-151.
- Wei, M. F., Liao, K. Y. H., Heppner, P. P., Chao, R. C. L., & Ku, T. Y. (2012). Forbearance coping, identification with heritage culture,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1), 97-106.
- Wu, E. K. Y., & Mak, W. W. S. (2012). Acculturation process and distress: Mediating roles of sociocultural adapt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Counseling Psychologist, 40*(1), 66-92.
- Zhang, J., & Goodson, P. (2011). Predictors of international students' psychosocial adjustment to life in the United State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2), 139-162.

A Longitudinal Study on the Role of State Learning Goal Orientation in the Adjustment Process of Interactional Students in Korea

Sunhee Le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conceptualized learning goal orientation as a state individual difference and examined the effect of the state learning goal orientation on adjustment and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Data from 62 international students in one university collected over one semester showed that state learning goal orientation had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n adjustment, academic performance, affective commitment, and attitude to Korea. Also, the study examined whether state learning goal orientation moderated the effects of cross-cultural training based on met expectations hypothesis. The interaction was significant for academic achievement. The interaction pattern suggested that the only those who had a low state learning goal orientation got the benefits of the cross-cultural training based on met expectations hypothesis while the training might have negative effects on those with a high state learning goal orientation. The implications of the current findings on adjustment and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well as state learning goal orientation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International students, State learning goal orientation, Cross-cultural adjustment, Cross-cultural training, Met-expectations, Conscientiousness, Academic performance

1차원고 접수일 : 2012년 03월 08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2년 05월 04일
게재 확정일 : 2012년 05월 09일